

지난호에서는 비로자나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삼라만상과 일체의 진리’를 부처님에 비유하여 법신불(法身佛)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사불(四佛)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불(四佛)은 본초불(本初佛)인 비로자나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부처님으로 분화(分化)해서 출현한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불(四佛)은 태장계만다라의 사불과 금강계만다라의 사불이 있습니다. 태장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방(東方)의 보당여래(寶幢如來), 남방(西方)의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 서방(西方)의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북방(北方)의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가 있습니다.

금강계만다라의 사불(四佛)로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東)에 아촉불(阿闍佛), 남(南)에 보생불(寶生佛), 서(西)에 아미타불(阿彌陀佛), 북(北)에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불은 명칭도 다르지만 그 방위(方位)도 다릅니다. 태금(胎金) 양계만다라(兩界蔓荼羅)의 방위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위가 동(東)이고, 아래쪽이 서(西)이며, 반대로 금강계만다라는 위가 서(西)이고 아래쪽이 동(東)이기 때문입니다. 만다라의 방위가 서로 다르므로 사불의 배치도 다릅니다. 양계만다라를 친견할 때 사불의 방위(方位)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위(方位)를 말할 때, 오른쪽이 동(東), 왼쪽이 서(西)이고, 위가 북(北), 아래가 남(南)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입니다만 인도의 양계만다라의 방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저로서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계만다라도 위아래의 방위가 서로 다른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저에게 도움말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금 양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방(四方) 사면(四面)에 네 분의 존상(尊像)을 배대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경주 남산의 칠불암(七佛庵)입니다. 칠불암은 KBS의 1박2일에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칠불암이 사면(四面)에 네 분의 존상(尊像)을 조각해 놓았다는 점에서는 오불(五佛) 배치의 형식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칠불암의 사방불은 높이가 2.23m 내지 2.42m 정도로 바위 모양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네 상(像) 모두 연화좌대(蓮華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3)

사불(四佛) I.



법경 정사



경주 남산 칠불암의 삼존불(왼쪽)과 사면불(오른쪽)

坐)에 보주형(寶珠形)의 두광(頭光)을 갖추고 결가부좌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면(東面)에는 약함(藥龕)을 들고 있는 여래가 새겨져 있고, 남면(南面)과 서면(西面)에는 동면상(東面像)과 비슷한 여래가 있고, 북면(北面)에는 동서남(東西南)의 다른 세 불상과 다른 형상을 한 여래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상의 명칭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방위(方位)와 수인(手印)·인계(印契) 등을 살펴 볼때 동면상은 약사여래, 서면상은 아미타여래로 보고 있습니다. 밀교를



경주 금강산 불굴사지의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

공부하는 저로서는 칠불암을 양계만다라의 사불(四佛)과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칠불암의 가장 큰 특징은 사방 석주 각 면에 한 불상씩 사방불을 새기고, 그 앞의 바위에 삼존불을 새겨 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그 삼존불은 바로 중앙 본존불(本尊佛)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면의 사불상(四佛像)은 바로 중앙 본존불을 중심으로 하는 사불로

서 오방불(五方佛)의 배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방 사면불의 양식은 또다른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경주시 동천동(東川洞)의 금강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굴불사지(掘佛寺址)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입니다. 굴불사지는 백률사로 올라가는 산 입구에 세워졌던 절로서 지금은 절터와 석불 입상군이 남아 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백률사는 신라 법흥왕 14년(527년), 불교를 국법으로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다 순교한 이차돈(李次頓)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지어졌던 절입니다. 원래는 자추사라고 하였습니니다. 신라의 왕성인 반월성(半月城)에서 이차돈의 목을 베었을 때 목이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진 자리에 ‘자추사’라는 이름의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백률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굴불사지의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불보살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약사여래불, 서쪽에는 아미타여래불, 남쪽에는 석가모니불, 북쪽에는 미륵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방불(四方佛)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방의 아미타여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불(四佛)과는 다른 형태의 배치라고 보여집니다.

굴불사에 대한 자료는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신라 경덕왕이 백률사를 찾았을 때 땅속에서 열불 소리가 들려서 땅을 파 보니 이 바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바위의 사방에 불상을 세우고 절을 지어 굴불사(掘佛寺)라 하였습니니다.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군의 서쪽에는 삼존불이 있는데, 불상의 형태로 보아서 아미타삼존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면에 약사여래, 남면에 석가모니불, 북쪽에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정지를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수공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위의 사면에 사방불(四方佛)을 새겼다는 점은 만다라의 사불(四佛)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불의 배치는 바로 신라의 국토를 만다라의 세계로 나타내고 싶은 신라인의 여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경주의 남산(南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에는 수많은 사찰과 탑, 마애석불이 존재하는 불교의 성지(聖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국토를 만들고 만다라의 세상으로 만드는 그 출발은 바로 본존불을 중심으로 한 사불(四佛)의 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서 태금 양계만다라의 사불(四佛)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문화재청)

법경 정사/밀교연구소 연구원/ 법천사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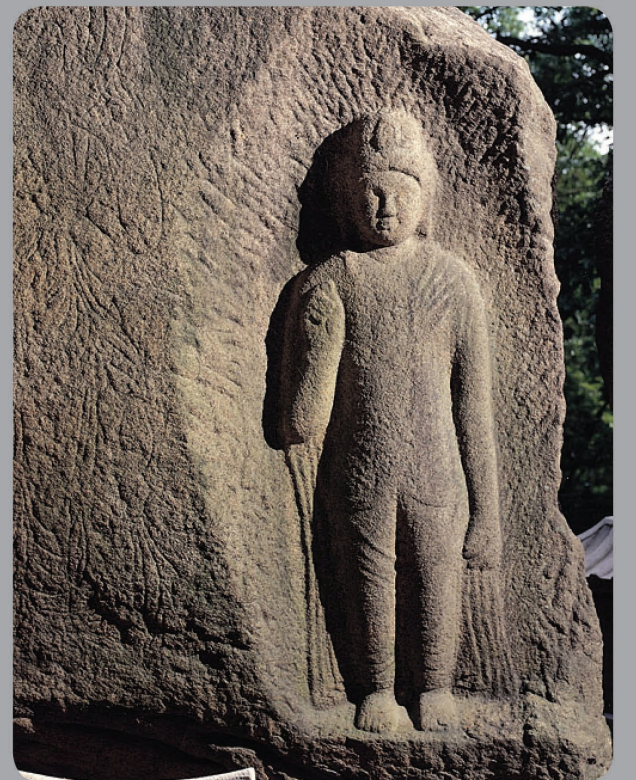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의 동면(東面) 불상



서면(西面)의 아미타삼존불



남면(南面)의 불상



북면(北面)의 불상

보일러에 **물만 바뀌어도 열효율을 33% 높여줍니다**

난방비 걱정 끝!

자꾸만 올라가는 기름값! 가스값!

늘어나는 난방비 때문에 신물나시죠?
국내최초 난방비를 **1/3 이상** 줄여주는
새로운 따끈이 난방수가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
탄소세를 줄입니다!

음이온효과로
건강에 탁월합니다.



✓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탄소세를 줄입니다!

✓ **국민여러분,**
따끈이로 절약하고 애국합시다!

동파해결! 100%

(주)도란의 기술력이 탄생시킨 신물질, Bio따끈이

-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에 간편하게 따끈이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 물보다 비열이 월등하기에 **25%~33%** 이상 열효율이 높아집니다.
- 한번 넣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되고 **혹한기 동파 우려가 없습니다.**
- 다른 난방절약 기기와 달리 별도의 시공,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 탁월한 부식방지 작용으로 보일러의 수명을 오래 가게 합니다.

www.dolan.co.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도란
DORAN Co., Ltd.

■ 대리점모집
■ 영업사원모집 00명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12년 4월 3일

음력 3월 12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가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6년 제149호

총기 41년 총지중 중앙총회 봉행

총기 40년 결산 및 올해 주요 사업 보고 승인



총기41년 정기 중앙총회가 3월 27일 통리원에서 봉행되었다. 중앙총회 의장 대원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이번 중앙총회는 통리원 집행부와 담당부서 교무들이 출석한 가운데 총기40년 결

산과 올해의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3월 26일 연석으로 열린, 원의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에서 심의 상정된 주요안건은 결산심의와 사원 현안, 동해중 서

원당 신축, 어린이집 수탁 및 임기 만료 임원 취임 승인 건 등이다. 중앙총회는 지난달 열린 통리원 사무감사 결과를 안성정사로부터 보고받고 통리원에 전달했다. 주요 안건중 임원 선출

건은 유지재단이사에 법일정사와 서령정사를 선임하였다. 복지재단 이사에는 지성 통리원장의 연임과 시정정사, 법경정사, 지정정사, 법일정사를 선임이사로 선임했다. 사감위원으로는 안성정사를 연임시키고 정원심 전수를 신임 위원으로 임명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인선정사와 강경중 전 교장선생님의 연임을 승인하고 이사에 원당정사를 선임하였다. 중앙총회는 이외에도 괴산 수련원 돌레길 위치 변경의 건과 각 교구별 장례팀 구성등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특히 교구별 장례팀 구성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장례에 대비하여 사전에 매뉴얼화된 장례팀을 구성하여 승직자와 교도들에게 장엄하고 신속한 장례의례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4월에 실시될 예정인 대만 '자재공덕회' 연수와 춘계강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통리원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통리원=장동욱 계장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세곡 어린이집 수탁

복지사업의 다각화를 모색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3월 19일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새로이 개원하는 세곡동 어린이집 위탁 협약을 맺었다. 이번 어린이집 수탁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세곡동 택지지구 내에 신축한 어린이집이다. 총 면적272.65㎡의 어린이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복지재단은 부산 정각사 내 지역아동센터와 전주 흥국사내 노인요양 시설과 함께 복지의 3박자를 모두 갖추었다. 그동안 꾸준한 복지사업 진출과 성과로 불교계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에서 새로운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통리원=김지영 교무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식 봉행

참나를 바로 찾아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교단으로 다시 태어나자



3월 28일 오후 2시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식이 봉행됐다.

이날 추대식에는 불교 총지중 통리원장 지성정사, 총부부장 인선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와 이웃종단 대표자, 세계적 종교간 대화 지도자인 랍비 잭 뱌포라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부대중 1만 여명이 참석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행사에서 “종정예하께서는 수행 외길을 오롯이 걸어오신 수행자의 표상이시며, 경허-혜월-운봉-향곡선사로 이어지는 선가의 법맥을 계승하여, 부처님의 법등을 크게 밝혀 드신 분이 바로 종정예하입니다.”며 “실전의 앞자리에,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로 모시는 종정예하가 계시리라 믿는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종정스님의 지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교단,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교단으로 탈바꿈하는 다짐의 시간이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종정스님의 가르침과 사부대중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종정추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랍비 잭 뱌포라드는 “모든 종교는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와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있다. 진제 선사님의 간화선 수행법은 각자



의 참 나를 찾아 깨달음을 실현하는 매우 훌륭한 길이다. 이 수행법은 전 세계에 더 큰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한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제 법원 종정은 법어를 통해 “참나 가운데 밝은 지혜가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복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자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갖추어져 있음이다.”며 “이 참 나를 바로 알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만인 앞에 진리의塵(진)을 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자유자재합니다.”며 조계종의 종지인 간화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는 최광식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통령 메시지 대독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의 헌사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79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총기 41년 4월 24일(화) ~ 4월 26일(목)

|장소|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 파크

|대상|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변화만이 부처님 법을 이어가는 최고의 방편이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및 지도자 타 종단 방문 연수

조계종의 집행부, 본사주지, 종회의원등 지도자 스님들과 실무 국장, 팀장들이 이웃종단인 진각종, 천태종, 원불교의 성장을 주목하고 직접 그 현황을 탐방하는 연수를 3월 15일에서 16일 양일간 가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호계원장 법등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본사주지협의회장 금산사주지 원행스님 등 조계종 지도자 130여명은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지도자 연수를 진각종 통리원, 천태종 구인사,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했다.

조계종 지도급 스님들이 단체로 연수를 시행한 것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이다. 또 이웃종단을 직접 방문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5일 오전 9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가진 입재식에서 "이들 종단은 우리 종단에 비해 비록 역사가 짧고 규모도 작지만 수십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에 담겨있는 내면의 원동력을 이해하면서, 우리 종단이 참고할 부분은 눈여겨 보고, 이웃 종단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이웃 종단에 대한 이해와 공간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운영 시스템의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연수에 임하는 스님들을 격려했다.

연수단은 첫 방문지로 15일 오전 10시 진각종 통리원을 방문해 통리원장 혜정정사로부터 직접 진각종의 수행, 인사시스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종단 운영 전반에 대해 브리핑 받았다. 또 스님들은 이날 오후 3시 단양의 천태종 구인사를 방문하고, 천태종 현황에 대해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오전 8시부터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원불교 기획실장 배현송교무로 부터 원불교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웃종단의 재정 관리와 인사시스템, 승려노후복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발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등 이웃종단의



성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대중공사를 통해 '이웃종단들의 성장은 통합재정운영과 무명한 재정관리,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또 종단의 재정투명화와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한 결과, 종단 역시 향후 '본사단위의 재정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직할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제를 확대해 나가고 향후 본사 행정력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종단행정에 대한 대중공사 후에는 "선거와 종단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강의(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를 듣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불교계 내부 요구보다 사회와 국민요구가 우선이라며, 양대 선거 등 현 국면에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찰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단 선거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중총회법에 벌칙과 징계조항 신설, 통합선거법 제정 등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주요 지도자 스님들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를 통해 조계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을 걸어 갈 것을 다짐했다.

김종열 기자

부산 범어사 신임주지에 수불 스님 선출

-조계종 총무원 4월4일 임명

'금품선거' 논란으로 연기 되었던 조계종 부산 범어사 주지에 수불 스님이 당선됐다.

수불 스님은 25일 오후 열린 범어사 산중총회에서 선거인단(384명)의 과반이 넘는 195명의 지지를 얻었다. 총 352명이 참가한 이날 산중총회에서 원정 스님과 상운 스님은 각각 85표, 70표의 지지를 얻었다. 수불 스님은 산중총회 결과 발표 직후 "부산 불교의 변화와 개혁은 단절이 아니다. 모든

전통을 유지하면서 구대의연한 모습은 바꾸는 것으로 협력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모두 화합해 원용살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겸손하고 공심을 가지고 자비행을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불 스님은 범어사로 출가해 1975년 지유 스님에게 사미계를, 1977년 고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1979년부터 큰스님들을 시봉하며 제법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해 재가불자들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고 있다. 총무원장 임명을 거쳐 4월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종열 기자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봉행

-3월 11일 조계사에서 사부대중 5000여명 동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시대의 미혹을 깨우친 조계종 성철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가 3월 11일 조계사에서 봉행되었다. 동주스님의 성철스님 종사영반을 봉행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법전 조계종 종정은 원로의원 현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법교창신(法敎創新)의 안목으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던 봉암사 결사는 선문(禪門)을 중흥케 하고, 백일법문은 출가자의 수행정로(修行正路)이며 재가자에게 삶의 지남(指南)이었다"라면서 "일체중생은 타성과 구습을 멈추고 스스로 반조(返照)하며 탄신 100년을 맞아 해동(海東) 땅의 룸비니 동산에서 다시금 노사(老師)를 기려 법은(法恩)의 무변(無邊)함에 계수(稽首)하여 화남(和南)한다"고 축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포교원장 지원스님이 대독한 헌사를 통해 "장좌불와와 동구불출의 수행자 길과 3000배와 참회정진, 한글법어 등으로 현대인들 삶의 방향을 제시한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스님의 실천 수행을 회고했다. 성철문도회 원택스님(백련불교문



화재단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그간 큰 스님 존승이 문중 중심이었으나 이제 종단이 앞장서 그 뜻을 기리게 됨으로써 조계종 전통과 정체성을 더 높이는 길이 열렸다"면서 "오늘 법회를 효시삼아 역대 종정예하와 각 시대에 공적이 큰 큰 스님들 뜻을 기리는 법회를 종단에서 이어가길 바란다" 며 스님의 가르침을 이

어나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성철문도회와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스님, 무진장스님, 인환스님, 정관스님, 종하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불교신문 사장 수불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진각종 총인원 정문 이전 지진불사 봉행

-진각문화전승원 완공에 맞춰 예전의 자리로 복원



진각종은 3월 19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정문 이전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진각종 성조 총인을 비롯한 원로스승 일정 정사, 지혜심 전수와 통리원장 혜정 정사, 진각대학원장 겸 재무·건설부장 수성 정사, 서울교구청

장 겸 총무부장 무외 정사, 문화사회부장 덕정 정사, 교육부장 관천 정사, 서울교구 스승 및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오복 봉청 및 정공으로 시작된 이날 불사에서 총무부장 무외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이 공사가 원만히 성

취되어 이 길목을 지나는 모두가 미혹과 번뇌를 벗어나고 심인을 밝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발원한다"며 "종단이 뜻을 세우고 종도가 받들어서 이루어지는 정문 이전을 통해 총인원이 일체중생의 삼독을 다스리고 청정한 신심을 복돋우는 거룩한 수행의 터전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총인원 정문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정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혜정 정사는 이어 "길은 도라고 하여 길이 바로 서면 정도가 바로 서는 것"이라며 "오늘 정문 이전 지진불사가 진각종의 정도가 바로서는 초석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했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완공에 맞춰 정문을 예전의 자리로 되돌려 놓게된다. 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3/5	10,000
개천사	강순식	3/14	10,000
개천사	무명씨	3/22	10,000
건화사	무명씨	3/2	70,000
건화사	무명씨	3/2	5,000
건화사	무명씨	3/2	5,000
건화사	록경	3/16	10,000
건화사	법수연	3/16	10,000
관성사	박현숙	2/27	10,000
관성사	황성녀	2/29	10,000
관성사	정정희	3/15	10,000
관음사	정숙점	3/6	20,000
관음사	이정희	3/6	10,000
관음사	신막심	3/21	10,000
기로	정법계	3/2	10,000
기로	해정	3/2	10,000
기로	대관	3/19	10,000
기로	대자행	3/19	10,000
기로	밀공정	3/19	10,000

기로	법수원	3/19	10,000
기로	법장화	3/19	10,000
기로	법지원	3/19	10,000
기로	불멸심	3/19	10,000
기로	사홍화	3/19	10,000
기로	상지화	3/19	10,000
기로	수증원	3/19	10,000
기로	총지화	3/19	10,000
단음사	천공	3/5	4,000
단음사	법연지	3/15	10,000
덕화사	하순옥	3/13	5,000
덕화사	시정	3/19	10,000
덕화사	원만원	3/19	10,000
만보사	최옥순	3/21	10,000
밀인사	정정희	2/29	5,000
밀인사	이연주	3/8	10,000
밀인사	이채원	3/8	10,000
밀인사	묘심해	3/12	10,000
밀인사	원당	3/12	10,000

밀인사	이혜성	3/13	20,000
밀인사	무명씨	3/14	10,000
밀행사	석우성	3/6	20,000
백월사	진평	3/13	5,000
백월사	김봉민	3/14	10,000
벽룡사	무명씨	3/4	20,000
벽룡사	양지현	3/5	10,000
벽룡사	양정현	3/5	10,000
성화사	우당바라회	3/15	70,000
수인사	김봉기	2/28	10,000
수인사	장영택	3/2	50,000
승천사	원봉	3/16	10,000
승천사	지선행	3/16	10,000
실보사	이순옥	3/13	10,000
실보사	조순애	3/15	100,000
실지사	정우석	3/2	10,000
실지사	송우섭	3/19	5,000
실지사	박병성	3/20	500,000
실지사	이화수	3/21	10,000

정각사	이정선	2/28	5,000
정각사	구정희	3/14	20,000
정각사	박동휘	3/20	10,000
정각사	강영하	3/21	50,000
정각사	김문수	3/22	10,000
지인사	이형자	2/27	10,000
지인사	이형자	3/12	10,000
지인사	허성동	3/15	30,000
지인사	승효제	3/16	10,000
총지사	이인성	3/19	30,000
혜정사	조성기	3/20	20,000
화음사	박옥라	2/29	10,000
화음사	송호영	3/19	20,000
흥국사	지정	3/16	20,000
	안효정	2/27	20,000
	이혜원	2/29	5,000
	강순란	3/5	5,000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효강 종령 예하
총선 참여 특별 훈시



총선 참여가 진정한 호국불교의 실천

불교 총지종 효강 종령예하는 지난 3월 27일 중앙총회에 앞서 교도들의 총선 참여를 당부하는 특별 훈시를 내렸다. 효강 종령 예하는 “총지종은 총지 중의 하나인 호국불교의 참다운 실천은, 국민의 의무인 선거 참여에 있습니다. 매년 봉행하는 진조국가불사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산업발전을 기원하는 총지종은 국가의 일대 대사인 총선에 자진해서 참여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바쁜 일이 있는 교도는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라며 스승과 교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독려했다. 김중열 기자

제2차 총지종 교육위원회 개최
- 시무교육 시행 안 마련을 위해서

총지종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은 시무교육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기위한 제2차 교육위원회를 3월 27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했다.

9명의 교육위원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개최된 이날 회의는 그동안 시행해온 시무 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교육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무교육기간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시간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시무 교육 기간은 2년간으로 하고 13차에 걸쳐서 104강(1강=80분)을 수강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이 짧은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매 회차마다 오전 11시까지 공식불공을 마치고 매일 1강씩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현재로서는 강사진 구성 문제로 내년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3개월의 외국불교 체험 및 연수과정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1개월 과정의 정각사 및 현장 사원 체험도

추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외국 수행체험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소정의 예비 교육을 받은 후 파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 과 목 은 1) 기초 소양 교육 2)근본불교교리 3)대승불교 4)밀교 5)응용불교 6)총지종학 7)행정실무의 7개 파트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과목에 대한 강사 배정 및 시간 할당이 이루어졌으며 부족한 부분은 차후 회의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화령 정사는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종단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틀을 바로 잡고 효율적인 시무교육을 통해 불교적 소양과 인성이 충분히 갖추어진 승직자 배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체 강사진을 보강하기 위하여 강사 인원도 보강하고 강의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총지사 각자님 신행모임 결성
-매월 한차례 정기 모임 예정



서울 총지사 각자님들이 불공정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3월 11일 월초 불공을 마치고, 통리원 3층 법장원에서 전정부 각자님을 비롯한 6명이 첫 모임을 가지고 총지사 각자님들을 회원으로 하는 신행모임을 결성하기로 결의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전정부 각자님을 회장, 유성열 각자님을 총무로 선출하고 매월 월초불공 회향일에 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회장 전정부 각자님은 “단순한 친목모임을 떠나, 음성공양도 함께하고 신행의 도반으로 불공정진하기로

했습니다.”며 이번 모임의 결성으로 총지사 교화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했다.

총지사는 이번 각자님들의 신행 모임 결성으로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전망이다.

총지사= 편집위원 이인성

낮은 곳에서 바친 교화의 열정

불명각 전수 열반



평생을 낮은 곳에서 교화와 수행에 정진한 불명각 전수가 3월 19일 열반에 들었다. 총지종 통리원은 장의위원회(위원장 지성 통리원장)를 구성하고 3월21일 오전 9시 경주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고결식을 봉행했다.

지성 통리원장을 비롯한 장의 위원들과 유가족, 전국의 스승 교도들이 참석한 고결식에서 지성 통리원장은 고결사를

통해 “불명각 전수님이시여! 종단과 저희들의 크나큰 인연을 생각하시어, 오늘은 비록 저희들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계속하여 종단발전과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저희들을 하루속히 인도해 주시옵고, 그리고 저희들을 무명과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혜와 성취의 길로 들게 하소서. 저희들 또한 불명각 전수님의 한량없는 법은(法恩)을

오래오래 가슴에 새겨서 더욱 밝은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진세(塵世)의 백팔번뇌에서 벗어나시어, 피안(彼岸)의 저 밝은 속에서, 누리지 못하셨던 모든 복락을 길이길이 누리옵소서.”라며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승단을 대표해 대구,경북 교구장 지공 정사는 추도사에서 “굳건한 사명감과 깊은 신심과 발심으로 일관해오셨던 종단생활, 오로지 일체중생의 구제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영육을 같이 나누며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중생제도의 본회(本懷)를 남김없이 펼쳐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바빠 가시니 통애(痛哀)의 큰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라며 교도들의 슬픔을 전했다. 고결식을 마친 범구는 경주 장례장에서 다비식을 거행하였다.

불명각 전수님은 기사생으로 총기 명예전수에 임명되었다. 평생을 종단의 어렵고 힘들일들을 자진해서 도맡아 하였고, 총기 31년 승천사 근무를 명받았다. 세수 81세로 세연과의 인연을 다하고, 교도들의 극락왕생 서원을 받으며 아미타 정토로 가셨다. 49제는 경주 국광사에서 봉행 될 예정이다.

경주=김중열 기자

조용히 교화와 수행에 임한

자애로운 스승님

대도행 대전수 열반



4월 1일 총지종은 또 한분의 스승님을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떠나보냈다. 대도행 대전수님이시다. 1931년 신미생으로 세수 81세, 범람35년.

대도행 전수님은 평소 말 수가 적으신 분이셨다. 언제나 웃음으로 교도들을 대하시고, 철두철미한 용맹정진의 자세로 수행에 임하셨다. 1977년 지송급에 품수되면서 스승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처음 육학서원당

근무를 시작으로 밀법 교화의 길로 드셨다. 1989년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관성사 주교로 부임하시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중생 교화의 불모지를 탐탄한 교화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2000년 기로스승으로 진원 하실 때까지 관성사에서 누구도 이루 지 못할 교화와 수행의 높은 탑을 세우시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전념하셨다.

4월 3일 서울시립동부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공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고결식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하여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장의위원장 지성 통리원장은 고결사에서 “대도행 전수님의 자비로 우신 심성과 수연(粹然)한 모습을 이제 어디에서 다시 뵈오리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 같고 꿈결 같습니다. 세연을 다하면 육신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지만, 대도행 전수님의 떠나심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덧없습니다.”며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스승님이 교화의 장을 폐시던 관성사 신도회장 홍순화 보살은 추도사에서 “언제나 자상한 얼굴로 때로는 엄하게 꾸짖던 대도행 전수님, 이제 대도행 전수님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생전의 모습은 영영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며 눈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대도행 전수님의 범구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다비식을 봉행한 후 관성사에서 반혼제를 올렸다. 49제는 관성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립승화원=김중열 기자

불교총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지

위드다르라는 진리의 말씀들을 울곧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Contents 4. 2012

불교이야기, 불교의 포용성과 관용_화령정사
수행이야기, 땀과 눈물, 열매를 맺는 길_성운대사
[기획연재] 성모전_원철스님
진언수행이야기, 참회서원, 범종정사
[태마기획]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라_본각스님
만다라세상, 거울에 먼지를 닦듯 삼도를 닦아_지정정사
마음의 등불, 사학도_한성자안선사
차양기속으로, 장기기증은 자비나눔_임연스님
행보찾기, 봄마중_지현전수
씩웃안말, 길은 사람이 만든 것
빠아리경전읽기, 무어
진리의 길, 일상화단 괴로움_보정
아주 특별한선물, 병든 사람들에게_달라야리야
이달의경전, 연우경
지혜의뜨락, 연필같은 사람_파울로코엘로
디딤돌, 구두 닦는 철학자! 도매의 가치
함께보는불교미술, 천상과 지옥을 구경하다
발걸음따라, 수종사에 가다_백용산
산책, 4월, 그 꽃, 정밀자
건강칼럼, 걸으면 뇌가 젊어진다
규제와편견의한계를넘어신여성들, 왕재덕_백모정
결명의담긴이야기, 잘 듣는 것이 잘 배우는 것
건강안방상, 알두콩 두부
우리말바루기, 경제 | 언어도단

★ 마음의 등불 중에서

坐石學堅水學淸
對松思直月思明
無言萬像皆師友
唯獨山林主伴成

돌에 앉아 단단함을 배우고
물에서 맑음을 배워
소나무를 보면 곧음을 생각하고
달을 보면 밝음을 생각하지
말없는 모든 것이 모두가 스승이고 벗인데
오직 산과 숲이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네,

한성자안선사

★

담고 싶은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종 위드다르마 편집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전화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 동권 제102호
- 발행인 지성
- 편집 위드다르마 편집부

불교의 선정 ⑨



화 령
(중앙교육원장)

염불관

-선정의 상태는 정신통일과 뛰어난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염불관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합한 수행법으로서 부처님을 관하는 것에 의하여 심신의 정화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염불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불과는 차이가 약간 있다.

우리가 지금 염 불 이라 고 하 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것처럼,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래 부처님을 염한다고 하는 이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명상하는 것이다. 즉, 생각으로 부처님을 떠 올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칭념염불(稱念念佛)’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에 의하여 부처님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는 명상 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칭념염불이 주류가 되어 마음으로부터 부처님을 생각하는 관상염불(觀像念佛)은 그다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염불의

뜻은 마음 가운데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관상염불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오정심관이나 오선문과 같은 수행법은 주로 북방불교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남방불교에서는 선정에 드는 방법으로서 40종의 업처(業處)를 설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업은 선정을 의미하며, 업처라는 것은 선정의 토대 혹은 관법의 대상을 말한다. 관법의 대상으로서는 물질적인 것은 물론 관념적인 것도 모두 포함된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관하다가 나중에 숙달되면 구체적인 사물이 없어도 관념상으로 마음에 대상을 떠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법은 염불관에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불상을 앞에 놓고 관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오로만 부처님을 떠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수행방법은 40종의 업처 가운데에서 수행자의 성격에 맞는 적당한 업처를 선택하여 행하다가 점차 상위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수행자의 성격 등에 맞추어 선택하는 업처를 ‘응용업처(應用業處)’라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 통 으 로 사 용 되 는 업 처 를 일체업처(一切業處)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자(慈)와 사념(死念)과 부정(不淨)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자(慈)’는 자비심을 이용한 선정으로서, 처음에는 일정한 구획을 정해 놓고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자비심이 미친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점차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사념은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모든 집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집착할수록 도리어 괴롭게 되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하게 될 때에는 집착을 벗어나게 되므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도리어 번뇌를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 질 수 있으므로 사념관의 명상을 하는 것이다.

부정관은 우리 몸의 온갖 부정함을 생각함으로써 욕정을 누르고 욕신에 대한 애착을 벗어나게 하여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는 명상법이다.

불교에서의 선정법은 이러한 것만 아니라 각자의 근기에 맞추어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에서 말하는 반 주 삼 매, 《법화경》에서 말하는 무량외처삼매(無量義處三昧), 《화엄경》에서 말하는 해인삼매(海印三昧), 천태종의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 말하는 사종삼매(四種三昧), 밀 교의 아자관(阿字觀),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이나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 등 실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지만 대략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선정은 이처럼 정이나 관, 혹은 삼매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종교나 사상 등에서는 불교에서와 같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행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실천 방법도 설하고 있지만, 선정을 활용한 더욱 깊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고승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실천방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불자들이 기복의 차원에만 머물러 진정한 해탈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불교도들이 다 함께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정을 구분할 때는 정신통일의 정도에 따른 구별과 마음의 청정함에 의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다. 정신통일의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서는 마음이 산란하고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어느 정도 통일된 욕계정으로부터 색계 사선을 거쳐 무색계정의 최고 경지인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법에 따르면 오정심관이나 사십업처 등의 대부분은 욕계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정에 들었을 때의 청정함에 의한 구분은 그 마음 가운데의 지혜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정신통일의 상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의 정신통일을 이루는 무색계정에서도 무위의 지혜를 지니지 못하면 범부의 선정과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한 욕계정에서도 거기에 깨달음의 지혜가 들어 있으면, 그것은 뛰어난 무위의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신통일이 완전하지 못한 욕계정에 속하는 수식관이라도 거기에 지혜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라한과를 얻고 육신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뛰어난 선정의 상태는 정신통일과 뛰어난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와 관이 균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색계사선이 바로 지관균등의 이상적인 선정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색계 제사선이 가장 이상적인 선정이라는 것이다.

정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즉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지혜를 획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선정을 통하여 어떤 황홀한 상태를 경험한다거나, 정 그 자체의 편안함에 도취되어 그것을 즐기는 것은 바른 선정이라고 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경(魔境)이라고 한다. 외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선정에 잘못 몰입되어 그러한 신비적 상태에 도취하면서 그것을 탐하는 것에 그치고 지혜의 개발은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세간의 도사라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종류의 선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마경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의 지혜는 나올 수가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싸한 말을 해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무명의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번뇌 가운데에 머물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선정의 위험에 대해 주의를 하라고 옛날부터 엄하게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선정을 배울 때에도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른 방법을 배워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바른 선정을 가르쳐 줄 분들이 무척 드물다는 데에 또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아무튼 정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선정을 즐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외도의 명상과 불교의 선정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다.

진리의 여율

■ 계행과 정진으로 얻은 자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 감각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부자가 창고의 문을 단속하여 도둑의 침범을 막듯이, 비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에는 어떤 현상이나 특수한 환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다면

부정법(不淨法)에 흘러가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눈을 잘 단속하여 감각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보는 감각이 바른길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순결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요,
소리를 듣는 귀와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보는 혀, 차고 덥고 거칠고 부드러움을 느끼는 몸, 시비와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도 그와 같아서 어떤

탐 욕 과
에 착 과
비에 등의
현상이나 특수한 환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의식하는 것이 모두 제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순결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모든 감각을 잘 단속하여 그 공덕이 갖추어지면, 마음속으로 티없이 깨끗한 안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감각의 문을 보호한 공덕의 과보입니다.
또 어떤 것이 비구의 지족(知足)인가 하면, 그 몸을 보호하는 옷과 얻은 것에 만족하여 어디를 가든 한 벌 옷과 한 벌 바라때를 지니고 가는 것이요,
마치 새가 어디를 가든 날개만을 가지고 나는

것처럼.
비구는 이와 같이 청정한 계행과 감관과 만족을 갖추어 조용한 숲속이나 나무 아래, 한적한 곳을 선택해 단정히 앉아 바른 생각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요, 세속의 탐욕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에 머물며 남을 해치려하거나 성내고 미워하는 생각을 여의고, 모든 생물을 가없이 여기어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 머물며, 정신이 혼미한 데서 벗어나 산뜻하고 올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에 머물며,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에 머물며, 망설이고 의심하는데서 벗어나 깨끗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이와 같이 청정한 계행과 즐거운 정진의 힘으로 세속적인 오욕(五欲)의 노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비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갖추어 만족할 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난 현세의 과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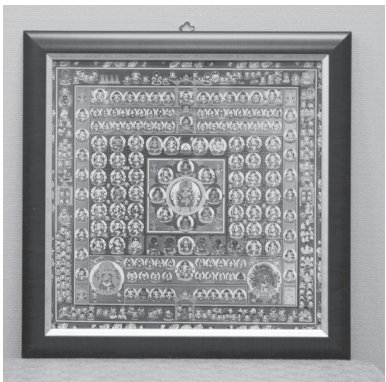
〈남전 사문과경〉
정리= 최영아 위원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겁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지상절법

오세대 제도는 진언행자의 사명

기로스승 법공 정사



인생에는 생노병사(生老病死)의 4단계가 있고 세월에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4계절이 있는 것은 우주자연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금년(壬辰年) 한해도 이미 깊은 동면(冬眠)에서 깨어난 문 생명들이 한바탕 생장의 악동(躍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역동(役動)의 4월 입니다. 우리들 불자들에게 있어 4월은 다른 달 보다 달리 의미 깊은 달이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교주(敎主)이신 “석가여래”께서 “무우수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핀 온화한 4월의 룸비니동산 에서 무명 중생의 구제를 위해 이 땅에 탄강(誕降)하신 역사적 대사건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춘생(春生),하장(夏長),추수(秋收),동장(冬藏)의 대자연의 섭리에 의해 모든 생명체가 4시(四時)를 쫓아 성장을 거듭 하는데, 만물의 영장(靈長)인

우리 인간이 어찌 성장(成長)에 뒤 처져서야 되겠습니까? 사바(娑婆)는 본시(本是) 천만경중(千萬輕重)의 업연중생들이 태어나는 세계라, 알고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야말로 법계(法界)에서 가장 큰 선악(善惡) 농장(農場)이라 볼 수 있지요. 부지런히 잘 짓는 농사꾼은 큰 수확을 거두고, 게으르고 놀기만 하는 농사꾼은 빈손으로 빗만 잔뜩 지고 딸린 식구들조차 굶기지요. 이전에 우리 총지종의 원로 큰스승 이셨던 “복지화”노사(老師)께서 “이세상은 전생에 복(福)지은이는 복(福)받으려 태어났고, 죄(罪)지은이는 벌(罰)받으려 태어나는 세상이라”고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육도(六道)윤회중생이 인도(人道)에 환생(還生)함이 비유 하면 큰바다 가운데서 눈먼 거북이가 백년만에 한번 고개를 물위에 내밀 때,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남(盲龜遇木)과 같고, 도술전에서 떨어트린 개자(芥子)씨 한 알이 이 땅의 바늘 끝에 꽃임(針芥相投)과 같이 어렵다고 했으며, 또한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불법(佛法)을 만나는 것이라(백천만겁 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행히 인연이 있어 이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 까지 만만이상 성장(成長)의 대 호기(好機)를 놓치지 말고 결코 후회 없는 인생경역을 잘 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불자들은 오로지 성중(聖中)대성(大聖)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수행자(修行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修行者)란 법(法)과 진리(眞理)를 스승으로 삼아 닦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범(犯)하고 후회와 실패를 거듭 하더라도 조석으로 스스로를 경책(警策)하고 추슬러 일로(一路)매진(邁進)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삼 학(三學)과 육행(六行)실천을 생활신조로 하여 끊임없는 정진(精進)으로 성도(成道)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 할 때까지 일향(一向)전진(前進)합시다. 항상 “나는 수행자다”라는 마음을 굳게 세기고 거북이 걸음일지라도 쉬지 않고 수행해 간다면

마침내 우리들을 대업성취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생에 와서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또 있으리요.

-기로스승 법공(法空) 합장-

■ 인터뷰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종단 월간지 『위드 다르마』에 ‘육자의궤’ 연재 종단 의궤(儀軌)에 대한 해설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매 월 발행 되는 종 단 월간지 『위드 다르마』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연재물 때문이다. 그 연재물은 ‘진언수행의 길 - 육자의궤 해설’ 코너다. 이 코너는 『위드 다르마』가

창간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로 밀교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연재되어 왔다. 특히 2년 전 부터는 총지종의 수행법인 ‘삼밀수행법’을 소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가져왔다. 그 가운데 ‘진언염송법’에 대한 연재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진언에 대한 해설과 염송 기도법, 진언의 공덕 등이 소개되면서 총지종의 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최근에는 종단의 불사법요(佛事法要)이자 염송의례라 할 수 있는 「육자의궤(六字儀軌)」에 대해 연재를 시작하면서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사원은 법회시간에 설법자료로 활용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위드다르마』가 종단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소개하면서부터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총지종의 종도(宗徒)들이 수십년간 염송수행을 해왔지만 그 의미와 내용, 방법, 경전상의

근거 등 상세하면서 체계화된 내용을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재를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한다.

본 코너를 연재하고 있는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를 만나 의견을 들어 본다.

▶ 왜 오랫동안 『위드 다르마』에 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 네, 창간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근 8년 6개월 동안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써왔지요.

▶ 8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까요?

- 그날 쓰다 보니 8년이란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몇 년 동안 쓰겠다고 미리 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매월 쓰다 보니 오랜 시간이 된 것 뿐이니까요. 소재 고갈로 글쓰기가 곤란한 적도 있었습 니다만,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무엇을 쓸까하고 항상 고민 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내용들이 떠오르곤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에게 ‘무엇 을’ 전해줄까 하는 점을 늘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내용이나 평상시 생각했던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항상 불교와 연결해서 글을 쓰려고 노력했죠. 특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내용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보려 고 노력했지요. 특히 종단의 월간지인만큼 종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 생각들에서 나오게 된 것이 지난 2010년 9월호부터 연재했던 ‘진언염송 과 기도법’이었죠. 그 연재는 지난 12월호까지 16회에 걸쳐 1년 넘게 썼지요. 연재 내용은 앞으로 종단 소개 책자를 발 간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소개 책자는 현재 윤 문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연재 이후에 새롭게 구상한 것이 이번에 연재되고 있는 ‘육자의궤’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진언염송을 해왔지만, 의궤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또 어느 경전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연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재가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내용과 의미를 알고서 행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자의궤 뿐만 아니라 총지종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소개하는 책자는 연말에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교양강좌를 열어서 본 책자에 대한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바랍니다.

김종열 기자

■ 편집실 단상

변화 혹은 방편 ?

최근 조계종은 종단의 지도자급 스님 130여명이 이웃종단인 진각종, 천태종, 원불교를 방문해 종단 운영 노하우를 연수하 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으로 자처하며, 간화 선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던 조계종의 이번 연수는 불교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왜 그들은 이웃 종단을 배우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체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나름 최대의 사찰수와 신도를 보유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어져오는 문중 중심의 파벌의식은 조계종의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그런 반면 중앙행정중심 집권 을 통해 일상불란한 종단운영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이웃종단은, 충분히 조계종의 아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 랐을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 조계종 승단 특유의 대중공사를 펼쳤다 한다. 대중공사란 한 절집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원이 날 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난 결론은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절집 내에 서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계종 지도자 연수의 대중공사에서는 구체적인 변화 의 결론은 나지 않은 듯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자 종단의 체면마저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 는 시도다. 무엇이 문제 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면, 조계종은 변화보다는 시시 때때의 방편에 급급한 종단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과감히 체면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 하려는 물고기를 뜬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계 전체에 새 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서로 도와가며 나눌 것은 나누고, 배울 것은 배우는 불교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 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앞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사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중 기획

불교민속=산신각 탐방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 명성황후가 복원한 현존 최대의 산신각



별들의 고향?

멀리 백두로부터 내 달린 태백산맥은 한반도의 중앙에서 서남으로 내려 차령산맥을 이룬다. 차령산맥은 대전, 공주, 논산을 연결하는 세모꼴의 연봉을 형성하는 데, 이곳이 계룡산이다. 최고봉의 높이는 해발 845미터로 주봉인 천왕봉을 비롯한 연천봉, 삼불봉, 관음봉, 형제봉 등 20여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계룡이라는 이름은 능선의 모양이 닭의 머리를 한 용을 닮았다 하여 닭 계(鷄)에 용 룡(龍)자를 써 계룡산이라 부른다.

일찍이 불교의 5불 사상을 근거로 한 '신라 5악' 중의 하나로 남악인 지리산, 북악인 태백산, 중앙인 팔공산, 동악인 토함산과 더불어 서악으로 계룡산은 위치를 잡았다. 이미 백제 시대부터 계림산, 웅산, 중앙 등의 이름으로 당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알렸다. 풍수지리에서는 우리나라 4대 명산으로 본다. 특히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계룡산 아래 '신도안'을 도읍으로 정하려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정씨의 도읍지'라는 도참설과 교통과 뱃길이 불편하다는 도학대사의 조언을 받아들이 뜻을 접었다 한다. 아직도 왕궁의 초석으로 보이는 105개의 돌들이 곳곳에 남아 그때 이야기를 증언 해 준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청와대 이전을 고려 할 정도로 주변 자연 경관과 풍수적 입지 요건이 완벽한 곳으로 통한다. 지금은 특별한 계획 하에 세워진 군사도시 '계룡시'가 자리했다. 이곳은 육, 해, 공군 본부가 위치하여 우리나라 국방 전략의 요충지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3군 총장을 비롯한 각군의 장성들이 많아 대낮에 별을 가장 많아 볼 수 있는 '별천지'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감록과 민속신앙의 요람

계룡산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당집과 정감록이다. 그만큼 수많은 민속 신앙의 발원지이다. 왕조의 흥망과 난세에 대한 예언집인 정감록에도 장차 일어날 도읍으로 기록된 길지가 바로 계룡산이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가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비결을 담은 예언서 이다. 특히 '감결'이라 불리는 부분을 속칭 '정감록'이라 한다. '감결'은 완산백 한룡공의 두 아들 이심(李心)과 이연(李淵)이 조선 왕조 멸망 후 일어날 정씨의 조상이라는 정감(鄭鑑)이 금강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글이다. 조선 왕조 이후의 왕족과 도읍을 예언하고 그사이에 일어나는 재난과 화변에 대한 이야기 이다. 정감록에 의하면 계

룡산은 미래의 도읍지와 환란의 피난지로 예언한다. 정감록에서 이심(李心)은 "산천의 문진 정기가 계룡산에 들어가니 정씨 800년의 땅이다."라고 하여 조선 왕조 500년이 지나면, 계룡산에 도읍한 정조(鄭朝) 800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이어서



정감(鄭鑑)은 "계룡 개국에 번(卞)씨 재상에 배(裴)씨 장수가 개국원훈이고, 방(房)씨와 우(牛)가가 수축과 같으리라." 하여 개국의 상황까지를 구체적으로 내다보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예언은 '감결'의 부록인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口記)'에도 "계룡산에 도읍지가 있으니 정씨가 이곳에 나라를 세운다. 그러나 복덕(福德)은 이씨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밝고 의로운 임금이 많이 나와 불교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감록에서는 온 나라에 큰 12년에 걸친 병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큰 난리를 피하여 살아남을 곳으로 이른바 '십승지'라는 것을 열거한다. 그 중의 하나를 계룡산 또는 계룡산 인근 지역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감록의 도참설은 구한말 어지러운 시대상에 불안을 느낀 백성들이 믿고 따른다. 이들은 계룡산에 관심을 점차 가지기 시작하더니, 무속 등 전래의 토속 신앙을 비롯한 각종 신흥종교 및 유사종교가 계룡산 신도안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난다. 이 중 주류를 이룬 것은 동학(東學)과 정역사상(正易思想)이었다. 동학계통의 시천교(侍天敎) 교주 김연국(金演局)이 1912년 신도안을 답사하고 이듬해 많은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다가 1920년 교당을 신축하여 이듬해 시천교의 본부를 그곳으로 옮긴 뒤 각종 신흥종교가 따라 들어오거나, 이곳에서 새로 일어나고 분열되고 하면서 마침내 계룡산은 사교의 요람으로 자리 잡는다.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수도장으로서 피란처를 겸하여 들어왔으나 차차 종교적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분

파에 분파를 거듭하여 수없는 유사종교의 집단으로 그 세를 불려나간다. 지금도 이들과의 연관성은 확연히 들어나지는 않지만 많은 종교 집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원사와 중악단

계룡산에는 동서남북으로 4대 사찰이 위치한다. 북쪽의 구룡사, 동쪽의 동학사, 서쪽의 감사 그리고 남쪽의 신원사이다. 백제 의자왕 11년, 서기 651년 열반종의 개산조인 보덕대사가 창건한 신원사는 수차례 중수를 거쳐 1866년 충청 관찰사 심상훈이 중건하고 사명을 신원사로 고쳐 불렀다 한다. 현존하는 전각으로는 대웅전, 향각, 영원전, 대방, 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은 주불로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제 80호로 지정되어있다. 향각의 주존은 명성황후가 불사를 하였다 전하고 특히 조선 후기 무학스님이 지었다는 영원전은 다른 절의 명부전으로 전각의 이름이 특히 하다. 영원전의 내부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시왕상을 모시고 영가천도불공을 주로 하는 전각이다. 이외에도 여래사리탑이라 불리는 오층석탑과 승탑이 현존하고 있다.

중악단은 신원사 대웅전의 동편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계룡산의 산신을 모신 제단이다. 현존하는 산신각 중에 최대의 규모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개국과 동시에 북쪽의 묘향산은 상악, 남쪽의 지리산을 하악으로 하고 계룡산을 계룡단으로 정해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마련한다. 1651년 효종 2년에 폐지되었다가 1879년 고종 16년 명성황후의 명으로 재건하고 이름을 중악단이라 고쳐 부른다. 조선 후기 왕실 주도로 건축된 중악단은 완만한 구릉지에 대문간채, 중문간채, 중악단을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둘레에는 네모난 담장으로 둘러싸. 조선 후기의 특징적인 궁전 건축 양식 및 수법을



해오는 전설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패망하자 백제의 왕족 이었던 한 사람이 계룡산으로 들어와 현재 남매탑이 있는 청량사지 터에서 스님이 되어 작은 암자를 짓고 수도생활을 하고 있었다. 스님은 나라 잃은 설움을 모두 잊고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수행 정진 중이었다.

눈이 내리던 어느 해 겨울, 스님이 좌선을 하며 삼매에 들어 있는데 밖에서 큰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이 밖을 나가보니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입을 썩 벌린 채 고통스러워하며 시름하고 있었다. 스님이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가 동물을 잡아먹다가 갈비뼈가 목에 걸려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스님은 호랑이에게 "네가 살생한 까닭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호랑이 목에 손을 넣어 갈비뼈를 빼주었는데 호랑이는 연신 고마운 몸짓을 하며 숲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호랑이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간혹 나타나 산돼지도 몰아다 놓고, 노루도 몰아다 놓고 가곤 했다.

스님은 호랑이가 동물들을 몰아다 놓자 "내가 그토록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거늘 또 살생을 했던 말이나?"하며 호랑이를 크게 호통을 쳐 내쳤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 스님이 불공을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이 밖을 나가 주위를 살펴보니 이게 웬일인가.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에 아리따운 묘령의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인의 머리에 가르마가 단정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갓 시집은 처녀 같았다.

이 깊은 밤 산중에 묘령의 여인이 무슨 연유로 이곳에 와 있던 말인가? 스님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여인을 초암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정성을 다해 극진한 간호를 했다. 스님은 여인이 의식이 돌아오자 여인에게 야밤에 이곳에 온 연유를 물었다. "남자는 누군데 이 깊은 밤에 산중에 와 계신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으며 겁에 질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스님이 여인을 가까스로 안정시키자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저는 경상도 상주 땅에 사는 처자이온데, 혼기가 되어 이웃 마을 양반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잠시 밖을 나왔다가 갑자기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한 끝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바로 이 곳이옵니다."

스님은 여인을 초암에서 며칠 머물게 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여인은 말하기를 "고향에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온데 이 몸으로 어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스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으니 저는 스님을 평생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하며 청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스님은 "나는 불제자인데 어찌 여인과 혼인 할 수 있겠소."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그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오누이처럼 같이 살아가자고 제안한다.

오누이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비구, 비구니로서 수행을 하다가 한 날 한시에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이 두 스님이 열반에 들자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행적을 후대까지 기리고 자 석탑 2기를 쌓고 남매탑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호랑이의 보은으로 맺어진 인연을 불법으로 승화하여, 평생 도반의 길을 같이 걸었던 두 스님. 지금도 계룡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전설로 길목을 지키고 있다. 교도 여러분들도 신록의 봄을 맞아 계룡산에 오를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둘러 참배하시기를 서원 합니다.

공주 신원사=김종열 기자



부분적으로 수용한 단묘건축물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있다.

대문간채는 정면 7칸, 측면 1칸 건물로, 솟을삼문 양쪽에 2칸씩을 덧붙이고 양쪽 끝에서 뒤쪽으로 2칸씩을 덧붙여 민형 평면을 이룬다. 삼문 양쪽에도 작은 2짝 판문을 달아 평상시 드나들게 하였다. 중문간채 안쪽에는 비교적 넓은 마당 가운데에 신도(神道)를 설치하였다. 대문간채의 중앙 칸 및 중문간채의 중앙 칸 판문에 신장상(神將像)이 그려져 있다.

본전 중악단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이다. 전각의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가운데 벽면에 단을 설치하고 감실에 계룡산신의 신위와 영정을 모셔두었다. 각 추녀마루 위에 각각 7개씩의 잡상을 배치한 점도 아름답다. 현판은 조선 후기 문신 이중하(李重夏)가 1891년에 쓴 것이다. 지금은 산악 동호인들을 위해 중악단 오른쪽에 야외 제단이 마련 되어있다. 기자가 취재를 간 당일에도 서울에서 온 산악회에서 시산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봄이 온 것이다.

계룡산 남매탑의 전설

계룡산에는 호랑이의 보은으로 오누이의 인연을 맺고, 평생 불법을 수행한 두 분 스님의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는 남매탑(男妹塔)이 있다. 동학사에서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위치하며 오뉴월, 청량사지쌍탑 이라고도 불린다. 조탑 양식으로 볼 때 백제 말기와 통일 신라 초기의 탑으로 보인다. 남매탑에 전

“편집위원이 가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것은 바로 백성들의 힘이었다.

천안 독립 기념관



3월이다. 3월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주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새봄의 시작을 누구나 3월쯤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의 새 학기도 3월에 시작한다. 편집위원회도 길었던 겨울을 벗어 버리고 새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3월 취재에 나섰다. 3월의 첫날은 국경일이다. ‘삼일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날이다. 1919년 일본의 무단통치로 고통 받던 시절,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번져나간 백성들의 독립운동이다. 위원들은 그날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찾아보기로 했다. 목적지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늘지역에서 모인 8명의 위원들은 각자 취재 장비를 점검하고 3월 22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으로 출발했다.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아 국민들이 세운 전당

서울에서 한 시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에 위원들은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당도했다.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병천을 아우내 장터와 인접한 곳이다. 교통은 독립 기념관 개관과 동시에 경부고속도로 지선이 개통되어 차량 이동이 쉽다.

주차장에서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정문으로 이동하니, 입구에 높이 51미터의 ‘겨레의 탑’이 우리를 맞는다. 너른 광장 저편으로는 겨레의 집도 눈에 들어온다. 족히 1,500 미터는 떨어져 있지만 그 규모에 압도당한다. 여기서 보는 집의 크기가 저 정도이면 얼마만한 크기일까? 겨레의 집은 독립기념관의 상징 건축물이다.

높이 45미터(건물 15층), 길이 126미터, 폭 68미터로 축구장 넓이 정도의 면적이다. 수석사 대웅전을 본떠 현대적으로 지어진 맞배지붕의 기와집이다. 북경의 천안문 보다 그 규모가 커 동양 최대의 기와 건축물이다.

이곳은 광복절 기념행사 등 중요행사장으로 주로 쓰이고, 건물 중앙에는 총 274개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불굴의 한국인상’이 자리한다. 겨레의 집 뒤편으로 7개의 전시관이 있다. 제1관 ‘겨레의 뿌리관’을 시작으로 우리민족의 국난극복과 일제로부터의 독립의 과정을 순서대로 관람 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87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관했으니 올해로 벌써 25년이 되었다. 독립기념관 조성 사업은 한마디로 한민족의 대역사였다.

당시 이 땅의 국민으로 벼돌 한 장 값 이상의 성금을 냈던 것은 다 아는 일이다. 모두가 내 집을 짓는다는 일념으로 동참했다. 사실 독립기념관 조성의 발의는 해방 직후부터 있었다. 1945년 사회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천도교회관에서 ‘독립기념관 건설준비위원회’가 발족한다. 하지만 당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공론화 하지를 못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75년에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한 ‘광복30주년기념심포지엄’에서 정식 안건으로 토의, 합의하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에 불을 다시 지핀 것은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그 발단이 된다. 분노한 국민들은 역사의 한편으로 묻혀있던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발족한다.

정부는 이에 천안군 목천면 일대 400만㎡를 제공해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1986년 4월까지 해외동포를 비롯한 국민 성금으로 490억 2432만 5009원이 모금 되었고, 전시를 위한 유물, 자료 7만 여점이 모이게 된다. 다시 찾은 나라의 독립기념관을 그야말로 국민들의 손으로 건립 한 것이다.

나라를 찾기 위한 백성들의 피나는 노력

겨레의 집을 뒤로 돌면 7개의 전시관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위원들은 제1관부터 돌아보며 우리 민족이 외침에 항거한 역사와 그 흔적들을 찾아 나섰다.

고조선의 단군왕검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 까지 우리민족의 역사는 수없는 외침을 이겨낸 항거의 역사였다. 서양문명과 제국주의가 밀려오던 구한말의 역사는 하루하루 격변의 나날들이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은 조선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위한 끝없는 패권다툼을 벌인다. 드디어 이 땅의 국모마저 시해하고, 동아시아의 패권 다툼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1910년 식민지로 불법 병합한다.

무력한 왕조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부패한 관료들은 앞 다투어 일본의 식민지 병합에 앞장선다. 당시 애국지사들은 자결로서 항거했지만, 이미 조선의 모든 것을 장악한 일본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조선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다. 전국 곳곳에서 일본의 강제 통치에 저항하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만 갔고, 드디어 1919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조선 반도 전역은 독립만세 운동으로 물결친다.

당황한 일제는 무력 강압 통치를 더욱 강화하였고, 독립을 염원하던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조국을 떠나 만주로, 미국으로 동지를 옮긴다. 제3 전시관 한 귀퉁이에서 위원들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한분의 애국지사를 만났다.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다.

고종 당시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7형제 중 4남이다. 그는 일본의 강제 병합을 맞아 가진 재산 모두를 처분하고,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로 이주,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인물이다.

1867년 한성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우당 이회영은 어려서부터 개방적이고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일찍이 개화사상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죽자 집안의 노비를 모두 면천 시켜주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누이동생이 어린나이에 과부가 되자 거짓으로 부고를 내고 재가를 시킨 일은 그의 개방된 생각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애국지사들과 교류하였고, 장훈학교와 공육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우당은 1910년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전 재산을 급히 처분하고 일가 60여명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다.

우당은 만주 지린에 터를 잡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운다. 이후 이 학교는 독립운동 무장 투쟁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배출한다. 우당을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아나키스트’다. 무정부주의자를 이르는 말이다.

우당이 아나키스트로 전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동생 이시형과 함께 참가한 우당은 항상 걱정하였던 임정 주도권 싸움을 목격한다. 이미 일본의 유명한 아나키스트 ‘오스카 사카에’의 저술에 크게 감동받은 우당은 임시정부를 미련 없이 떠난다.

그는 1925년 비밀결사조직인 ‘다물단’과 한중일 아나키스트 합작으로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하고 의장으로 취임한다. 또한 행동대인 ‘흑색공포단’을 결성, 일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1928년에는 아시아 각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이 결성한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 창립식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

아시아 각국의 아나키스트들과 활발한 항일 독립운동을 벌리던 우당은 1932년 일본 밀정의 제보로 상해에서 체포되어 뤼순감옥에서 재판없이 교수형에 처해진다. 우당의 삶이 힘겨웠던 만큼 그를 따라 만주로 갔던 형제들도 고난의 길을 걷기는 마찬가지였다. 세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한성을 떠난 6형제 중 5명은 중국에서 병사하거나 실종되었고,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다섯째 이시형은 초대 부통령에 오른다.

1910년 일제는 조선의 양반들 포섭하기 위해 ‘조선귀족령’을 반포한다. 이것은 병합에



협력한 양반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부부동반 일본여행을 시켜주며 기득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일제는 권문세가 80명에게 달콤한 유혹을 했다. 그리고 그중 단 6명만이 이를 거부했다. 이회영 일가도 단호히 거절했다. 모든 권위와 기득권을 버리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국의 감옥에서 숨겨진 이회영 일가. 그들이 고결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독립된 국가의 국민들은 가진 자들의 비리나 권력의 부패를 바라볼 때마다 우당 이회영일가를 떠올린다. 그들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아픈 역사도 역사이다.

일곱 개의 전시관을 차례로 둘러본 위원들은 우리가 모르고 놓쳤던 독립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만났다.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를 비롯해 나라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던진 수많은 독립 투사들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을 나와 태극기 광장을 둘러보며 우리 교도들이 마음 놓고 수행 할 수 있는 것도, 조국 독립을 서원한 많은 민중들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했다.

아외에도 많은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 로 관람한 곳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 이다.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 박물관으로 쓰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다. 그때 철거하고 남은 각 부분의 부재를 모아 공원으로 조성 전시하는 공

간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 제잔재철거를 주장했다. 행정 당국의 용어부터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대표적인 일제 통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광복절 기념식에서 침묵을 기증기로 내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당시 철거를 주장하는 측과 이전 보전하자는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 철 거를 주장하는 측은 총독부 건물을 철거함과 동시에 경복궁을 원형 복원하여 민족의 기상을 바로 세우자 했고, 이전 보전하자는 측은 건물의 역사성과 보존가치를 내세워 이전 보전하자는 측이었다. 물론 양측 모두의 의견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졌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정부는 철거 및 경복궁 복원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부재전시공원에는 총독부 각 부분에서 떼어낸 화강암, 대리석, 초심목 등을 원형으로 두루고 한 가운데 침묵을 전시하고 있었다.

위원들의 고대 로마의 원형극장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검투사들의 무대처럼 보였다. 일제의 잔재를 한가운데 두고 돌이라도 던져야 할 것 같았다. 이것이 최선이였을까?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일제 식민지 수탈 현장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픈 역사의 현장도 그 가치를 가진 만큼 보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편집위원 이인성, 박모정, 박정희, 최영아, 밀인사 통신원 김옥임, 장경임, 지인사 통신원 이형자, 벽룡사 통신원 양재범, 정래=김종열 기자





불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 나름?

-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저, 불광출판사 간



유식사상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아마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일 것이다. ‘일체유심조’는 분명한 뜻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지만 일반사람들도 흔히 사용하는 일상용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일상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혹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곤 한다. 사실, 『화엄경』의 한 구절인 ‘일체유심조’는 유식사상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로, ‘만법유식’과 같은 의미이다.

일체유심조와 만법유식,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一切唯心造] 오직 식뿐[萬法唯識]임을 밝히는 것이 유식사상이다. 마음에 의해 펼쳐진 이 세상은 인연화합에 의해 드러난 것인데, 사람들은 ‘보는 나’와 ‘보이는 세상’이 마음 밖에 실제로 있다고 집착한다. 이렇게 집착된 세상은 결코 있지 않다. 그러나 인연화합에 의해 마음으로부터 언제나 펼쳐진다. 즉 유식사상은 이 세상이 단지 우리 마음의 현현일 뿐 결코 우리가 본 대로 있지 않음을 밝혀낸다. 언뜻 보기에는 쉽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험사리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유식사상은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말로 대표된다. 유식무경의 ‘식(識)’은 일체유심조의 심(心)과 같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이나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

왜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고 할까? 유식무경(唯識無境)에서 무(無),

즉 ‘없다’는 말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유식무경’은 인식의 측면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기 전의 세상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떠나서는 결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식된 것이나 인식되기 전의 것이나 모두 마음이 만들고 마음속에 있다. 즉,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을 내 마음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유식사상을 펼친 유가행파의 시조는 마륵 보살이지만, 사상적 체계는 세전에 의해 완성되었다. 세전은 『유식삼십송』에서 식전변설을 수립하여 유식무경의 이치와 8식의 존재 양상 및 인식 성립의 역학적 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유식삼십송』은 30송의 계송만 있을 뿐 자세한 풀이는 없다. 이후 많은 논자들이 『유식삼십송』에 주석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뛰어난 이들을 십대논사라고 하였다. 친승(親勝), 화변(火辨), 덕혜(德慧), 안혜(安慧), 난타(難陀), 정월(淨用), 호법(護法), 승우(勝友), 최승자(最勝子), 지월(智月)이다. 유식학의 중심지였던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호법의 제자인 계현(戒賢)에게서 수학하였던 당나라 현장 법사는 이들 십대논사의 주석서를 모두 가져왔지만, 각각 따로 번역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호법의 학설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논자들의 학설은 참고로 선택하여 하나의 논서, 즉 『성유식론』 10권으로 편찬하여 번역하였다. 이 『성유식론』에는 인도 유식학의 사상적 정황의 면모가 잡대성되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 중국에서 보리유지의 『십지경론』 번역에 의해 지론종이 형성되었고, 진제의 『십대승론』 번역에 영향을 받아 설훈종이 형성되어 논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유식론』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법상종이 일어난 후부터는 호법의 해석을 정통 유식설로 중요시하게 되었고, 신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성유식론』이 번역된 이후 동아시아 유식사상계의 중심에는 『성유식론』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다. 이 책 『유식불교의 이해』에서는 『성유식론』을 중심으로 유식무경의 이치를 오늘날의 언어로 자세하게 풀이하였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유심조’를 풀기 위해 불교공부를 시작하였고, 20여 년의 공부 끝에 그 답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공부(工夫)’를 회향하고 싶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저자에게 이 책 『유식불교의 이해』는 철저하게 독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서 출발하여 그 상식에 의문을 품고 하나씩 헤쳐가면서 유식(唯識), 즉 유식무경(唯識無境)의 원리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다.

김종열 기자

♪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봄동 된장무침 - 봄철 입맛 돋우기



**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보내어 속이 들지 못한 배추로서 잎이 옆으로 퍼진 모양이며 맛이 달고 고소하게 씹히는 맛이있다. 겨우내 제철 채소의 신선한 맛을 그리며 움츠렸던 입맛을 돋우고, 비타민을 손쉽게 보충하는 데는 이만한 반찬이 없을 듯하다.

** 재료 준비(1~2 인분)

봄동 300g (2 포기 정도), 된장 1큰술, 다진 파 1큰술, 고추가루 1/2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소금 약간

** 조리 방법

1. 봄동을 한 잎씩 떼어서 깨끗이 씻은 다음 잎사귀를 길게 두 조각으로 가른다.
2. 봄동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1~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3. 데친 봄동에 준비한 양념을 모두 넣고 가볍게 무친다.

** 기타 팁

1. 봄동을 데칠 때는 기호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면 무르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봄동무침을 사골국물에 넣고 끓이면 영양식 봄동국을 즐길 수 있다.

달래 김무침 - 달래와 바다 냄새의 조화



** 달래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서 한방에서는 달래의 비늘줄기를 소산이라는 약재로 사용하며 여름철 토사곽란과 복통을 치료하고 중기와 별레에 물렸을 때 쓴다. 향긋한 달래와 바다 냄새 나는 김이 어우러지면 식욕을 돋우는 초봄의 간편 조리 메뉴가 된다.

** 재료 준비

달래 100g, 구운김 5장, 진간장 3큰술, 고추가루 1/2큰술, 꿀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 조리 방법

1. 달래의 둥근 뿌리 부분을 잘 다듬고, 전체를 잘 씻어서 4~5cm의 크기로 썰어 둔다.
2. 위의 분량대로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3. 달래에 양념장을 두르고 가볍게 버무린다.
4. 김을 잘게 부수어 버무린 달래에 넣고 가볍게 무친다.

** 기타 팁

1. 김은 파래 김이 보다 향기가 좋고, 살짝 구운 것이 좋다.
2. 기호에 따라 참기름 대신 식초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꿀이 없을 경우에는 설탕이나 물엿으로 대체할 수 있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 전시공연 ❧

성철스님 탄신100주년기념특별전

“자기를 바로 봄시다”

-3월 09일 ~ 6월 03일까지 조계종중앙박물관(조계사 내)



조계종 중앙 박물관은 우리 시대의 부처라 불리는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유품을 한자리에 모아 “자기를

바로 봄시다” 특별전을 열고 있다. 스님은 젊은 시절, 봉암사결사를 통해 도반들과 불교의 개혁의 초석을 다졌으며 오랫동안 뜻을 같이해온 여러 큰스님들과 마침내 해인총림 (선원, 율원, 강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일궈냄으로써 현재의 조계종의 초석을 다졌다.

성철스님은 가야산의 호랑이라는 별명처럼 스스로에겐 엄격한 수행자였고, 불교개혁은 물론, 철학과 과학에도 두루 능통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강의한 눈 밝은 선지식이였다. 안거철마다 선방 수좌들에게 율맹정진을 당부하며, 일반 불자들에게 당신의 말보다는 삼전배수행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는 법을

가르쳤다. 스님의 아름다운 한글 법어는 인간은 누구나 부처님처럼 귀한 존재임을 일러준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

이번 전시는 스님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과 스님의 깊은 사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유품과 영상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관람객들이 ‘자기를 바로 보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달아, 영원한 대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귀한 전시이다. 조계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성철스님을 비롯한 역대 종정을 지낸 큰스님들을 중심으로 조계종 50년 역사와 미래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계속 준비 중이다.

조계종 중앙박물관=김종열 기자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란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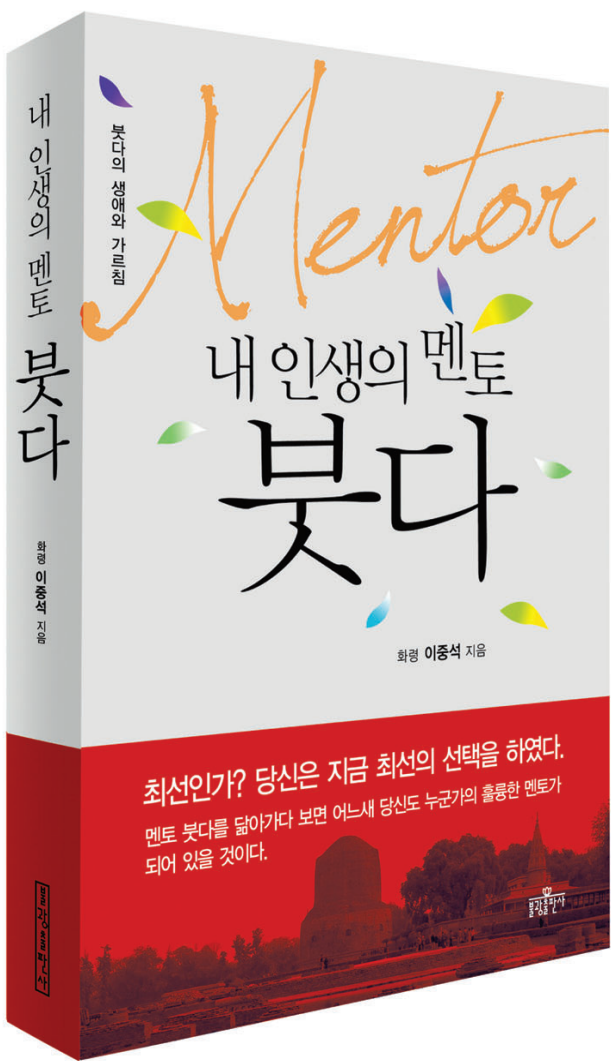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날마다 좋은날

빈자일등(貧者一燈)

자유기고가 이희정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준비에 들어간다. 불자들은 연일 하나마다 작은 서원을 담아 정성을 다해 등을 만든다. 이 작은 등불이 우주 법계를 환히 밝혀 미혹한 중생을 구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 전에 등 공양을 올린다. '현우경(賢愚經)'에는 부처님 당시 등 공양에 관한 일화가 전해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의 어느 정사(精舍)에 머물고 있을 때이다. 그곳 국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신분에게 맞는 공양을 하였다. 그 모습을 본 가난한 여인 난타(難陀)는 "모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공양도 할 수 없으니 정말 슬픈 일이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난타는 운종일 구걸하여 얻은 돈 한 톨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갔다. 한 톨으로는 아주 적은 양의 기름 밖에는 살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기름집 주인은 가엾게 생각하여 한 톨의 몇 배나 되는 기름을 주었다. 난타는 그 기름으로 등을 하나 만들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런데 그 수많은 등불 속에서 이상하게도 난타가 바친 등불만이 새벽까지 남아서 밝게 타고 있었다. 손으로 바람을 보내거나 옷자락으로 흔들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사연을 아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크게 감탄하고 세상 어느 누구의 값진 보물보다도 가난한 한 여인의 작은 정성이 법계를 환하게 밝혔다 하여 빈자일등(貧者一燈)이란 말이 나왔다.

가난한 여인 난타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준다.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은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주상 보시가 원칙이다. 자식을 위해,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보시를 해도 좋지만,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진 모두의 것이다. 어느 누구를 꼭 지목하지 않아도 다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무주상 보시의 원칙은 자신이 가지는 조그마한 물질적인 권리를 나누어 가짐으로 물질로 인해 벌어지는 탐욕과 원망을 없애는 방법이다. 요즘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어느 어느 연예인의 별명이 '기부천사'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화려한 물질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업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그리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알리지 않고 기부했다면 그 공덕은 수백 배는 더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주상 보시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물질을 나눈다. 바로 그들이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는 가난한 여인 난타와 같은 이들이다.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공양한 작은 기름 등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듯이 수많은 무주상 보시가 법계의 등불이 되어 부처님의 법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불자생활법률



아버지가 사회 단체에 증여한 유산의 일부라도 상속 할 수 없나요?

저의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은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 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내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 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제 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X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X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X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X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하동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02-596-4600)

충지동의보감

불임을 유발하는 자궁질환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여성들에게 있어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경이후까지 여성들의 피부와 미용, 건강 등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하체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기라고 봅니다. 그 중 자궁이 하는 중요한 역할 두 가지는 생리와 임신입니다. 여성들은 초경이 시작되어 매달 생리를 하게 되며 생리를 통해서 자궁을 비롯해 인체의 어혈과 노폐물 등을 배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만큼 새로

운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어 혈액순환을 돕게 됩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이유도 이렇듯 한 달에 한 번씩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혈액을 생성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외에 결혼 후 임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탄생의 신비로운 과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건강한 자궁은 폐경이후까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여성의 일생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건강한 자궁에 병이 들게 되면 반대로 폐경이후까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다양한 자궁난소질환으

로 여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성들의 자궁은 초경과 성생활, 임신, 출산, 유산과정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자궁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궁질환으로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등으로 이는 자궁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궁질환으로 암과는 다른 양성종양이며 대부분 결혼 후 30대후반이후의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발병연령이 점차 낮아져 10~20대의 젊은 미혼여성들 심지어는 여학생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가임기여성들에게 있어 불임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방에서는 발생한 혹의 크기가 5~6cm이상이고 생리통 및 생리상의 연관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게 될 경우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 자궁골반내의 차고 냉한 환경 및 그로 인한 순환장애상황을 개선해 자궁이 정상적인 생리혈을 배출함으로 더 이상의 진행과 악화를 막고 가임기여성들의 경우 정상적인 임신의 성립과 유지과정을 돕게 됩니다. 이러한 자궁질환들은 대부분 매달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야하는 생리혈이 자궁내에 정체됨으로 오랜 기간 서서히 쌓

여 발생하고 진행되는 질환들입니다. 하여 가임기여성들의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발생한 혹으로 인해서 임신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자궁질환이 발병하게 된 자궁과 난소의 기능적인 저하 상황 및 환경으로 인해 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결혼을 앞두었거나 현재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라면 발병한 자궁질환자체를 걱정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궁건강을 회복하고 발병환경을 개선해 가기 위한 치료와 생활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원활한 생리와 임신의 기능을 자궁이 수행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성美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약화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생혈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풍경소리

하루를 살듯이



일을 시작함에
평생동안 할 일이라 생각하면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는 것도
하루만 하라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오늘 하루 만이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백년도 하루의 쌓임 이요,
천년도 오늘의 다음날이니
하루를 살 듯
천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범현 스님

이달의 사진

통도사 봄매화



사진= 서희수 사진작가

이종무

대웅전
단청이 은은하다.

봄바람은
뒤꿈치 들고 경내를 돌고

풍경은
아직도 묵언 수행이다.

은은한 향기가 밀려와
부처님 마음까지 물들겠다.



내복사조 불교총전 제3호 발행기 p.207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屈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어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증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건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자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김장호)
농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 제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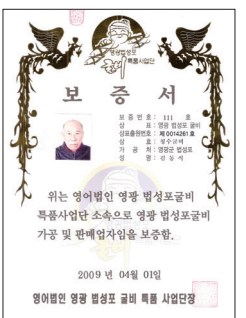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염어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급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싸서 냉동 보관하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지 됩니다.

• 요리방법

생선 굵은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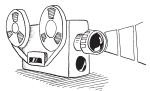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 제조원 청수굴비는 영어법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청수굴비는 범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





영화에서 불고보기 (21)

/행복을 전염시키는 영화 <바그다드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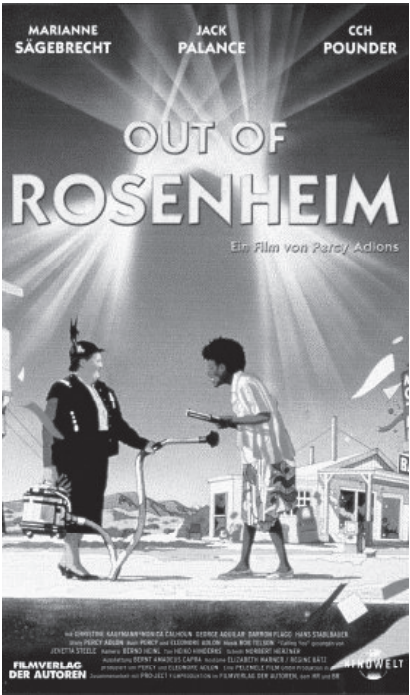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사춘기 딸과 내 관계는, 변심한 애인과 그 애인에게 집착하는 연인의 관계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딸은 변심한 역할이고, 엄마인 난 버려진 쪽입니다.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사람으로 여겼던 마음에 성난 파도가 지나갔는지 딸은 갑자기 변심한 애인처럼 냉정해졌습니다. 살갑게 굴던 착한 딸은 멀리 떠나고 쌀쌀맞고 뼈뺀 딸이 어디서 툭 떨어졌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친구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딸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버림받았구나, 하고 딸의 변화를 깨끗하게 수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변심한 애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여자처럼 구질구질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딸의 변심에 분노하고, 괴심해하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건너고 있는 사막의 한 단면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의 분노와 상실감이지요.

<바그다드 카페>를 보기 전에도 어김없이 딸과 전쟁을 치른 후라 기분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바그다드 카페>를 생각하면 것도 이런 지치고 가라앉은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몇 번씩 반복해서 보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졌을 충전용으로 이용하는 영화지요.

역시 이 영화 <바그다드 카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지난 번 <체리향기>에서 죽으려다가 체리를 맛본 후 기분이 좋아져서 삶을 선택한 노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노인의 경우처럼 <바그다드 카페>를 본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딸에 대한 집착과 분노로 멍쳐져 있던 마음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뀔 걸 보면 <바그다드 카페>는 꽤 힘이 센 영화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딸 때문에 괴롭다고 했는데, 딸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나의 소유욕이 원인인었고, 그 근원을 캐보면 '나'라는 아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 것이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내 고통의 근원은 '나'에 대한 집요한 몰입이었습니다. 나에게 집중할수록 불행해지는 원리였던 것입니다. 영화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해주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감독 퍼시 에들러의 <바그다드 카페>(1987)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이런 평범한 듯 비범한 진리입니다. 관심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로 돌리고 행복해지라는 것입니다. 1987년에 나온 꽤 오래된 영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입니다. 인생 최고의 영화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작품성이 탁월한 영화입니다.

특히 영화에서 좋았던 것은 오프닝입니다. 워낙 유명한 음악이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콜링 유 calling you>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풍뎉한 주인공이 커다란 가방을 끌며 모래바람 일어나는 사막을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땀을 흘리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는 야스민의 모습은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스민의 삶이 꽤 불편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뜨겁게 달궈진 모래사막을 걷는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야스민은 두꺼운 정장에 구두를 신었고, 또 땀뿜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어디로 갈지도 막연합니다. 남편과 싸웠고, 남편은 매정하게 그녀를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방금 전에 남편한테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공간 자체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스민은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처지라 야스민의 처지에 공감이가서 눈물 한 방울 짙어냈습니다. 아마도 나도 야스민처럼 지금 사막을 건너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영화의 묘미는,



사막을 수월하게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는 사람들에게 정갈 긴 숟가락을 주었다니 천국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막여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데, 지옥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입에 밥숟가락을 넣으려다가 결국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공 야스민이 가르쳐준 방법은, 위 일화처럼 자신에게 집중돼 있던 마음을 타인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더 큰 함정에 빠지고 다른 이의 슬픔에 관심을 가질수록 사막을 쉽게 건널 수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막을 한참 헤매던 야스민은 자신보다 더 힘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던 브렌다의 처지는 야스민보다 더했습니다. 언제나 빈둥거리면서 술에 집착하는 남편은 가정에 조금도 도움이 안됐습니다. 커피집에서 커피기계가 고장 난지 오래지만 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 기계



피아노 앞에만 앉아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브렌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브렌다에겐 오직 끝없는 노동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스민이 브렌다를 만났을 때도 브렌다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브렌다를 보면서 야스민은 깊은 자비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처지도 만만찮지만 브렌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아픔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도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서 오히려 자기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괴롭지만 더 불행한 사람을 보자 자기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더몰아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가 관세음보살님의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아닐까요? 타인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경지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 받은 풍뎉한 중년 여자에서 관세음보살의 경지로 승화하게 된 것입니다.

모텔을 겸하는 바그다드 카페에서 장기 투숙하는 화가 콕스가 그린 그림 속에서 야스민은 성녀로 묘사됩니다. 머리 둘레에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콕스의 눈에 야스민은 성녀였습니다. 바그다드카페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그다드카페는 인생 패잔병들의 집합소입니다. 문제 많은 브렌다 가족 말고도 장기 투숙자들과 종업원이 있습니다. 늙은 화가 콕스는 할리우드에서 입간판을 그리다가 일자리를 잃고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고, 데비라는 여자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문신을 그려주며 생활하는 여자인데 화목하고 밝은 걸 못 참아 할 정도로 착한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도대체 왜 거기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무능한 인디언 종업원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사막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스민도 그들처럼 사막을 건너는 그냥 그런 아줌마일 수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쪽으로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야스민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풍뎉한 아줌마 야스민을 버리자 무한한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브렌다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된 야스민의 친절은 결국 이들 모두를 구제했습니다. 화가 콕스에게는 모델이 돼 줌으로써 화가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고, 피아노만 치는 아들의 음악을



이해하는 유일한 관객이 되고, 놀기만 좋아하는 딸과도 친구가 돼줌으로써 날라리 딸이 가정에 마음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삭막한 브렌다의 마음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흥물스런던 바그다드카페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웃고 즐기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탈바꿈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야스민이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라고 하였고, 12연기를 통하여 삶이 고통일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괴롭게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집착이었고, 그렇게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딸에게 집착하는 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스민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이런 연쇄 고리를 과감히 끊어버렸습니다. 야스민은 고통 대신 행복해지는 길을 택했는데 그 방법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자 무한한 지혜가 생겼고, 행복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다시 확인하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불교의 이러한 이론을 사람들에게 다가가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본연의 목적인 재미도 잃지 않았습다. 적당히 흥미로운 전개와 곳곳에 뿌려진 유머는 영화의 맛을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센 영화였습니다. 지금 사막을 건너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자유기고가 김은주

진언행자 생활광고

주방 생활가구 전문회사 화영기업(주)

‘나무촌’ 관리실장 박인자입니다.

틀에 얽매인 사고가 아닌 미래지향적 창조적 사고와 신뢰만이 생존의 기틀이란 신념아래 여래 ‘남’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쌍크대, 불박이장, 신발장 도어만 교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299-1

상담전화: 031-983-3524, 3560 팩스: 031-983-3594

핸드폰: 011-706-4080 홈페이지: www.namuchon.com

아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점

풍원(豐元)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모든 분들을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단체 및 연회석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4(오금초등학교 맞은편)

예약전화: 02-3401-5919

친환경 고려인삼

아달산삼

산삼, 산양삼, 무농약이상의 인삼 등

친환경 고려인삼을 공급합니다

암을 비롯한 난치병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에 따라 체질 맞춤형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유기농인증 제12-02-1-22

충북 청주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관 14호

상담전화: 010-2715-7377 / 010-7306-7379

총지중보 구독신청

총지중보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밀법을 홍보하는 교화의 방편입니다.

중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총지중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구독신청 : 통리원 02)552-1080

*가족과 친지들에게

한부씩 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노후는 든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 의료실비, 종신 보험 등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화랑대지점

파이낸셜 컨설턴트 강경민(총지사 교도)

상담전화: 017-325-4248

맛춤떡 전문

떡사랑

맛있고, 영양많은 떡을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돌/백일/이바지/결혼/회갑/개업/각종행사

주소 : e-편한 대림 센트레빌 상가 102호

임진숙(총지사 교도)

주문전화: 02)897-7741

010-2387-7037

생각더하기 출판사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 윤문 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불가집 각종 경전류 발간

TEL : 070-4249-1987 www.mindplusbook.com

진언행자 생활광고 모집

진언행자 생활광고는

교도여러분의 사업 번창의

지름길입니다.

각 사원의 중보 통신원을 통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대표신청문의

편집위원 강경민 017-325-4248